

중국

China

1. 첨단기술과 물류가 결합한 신유통. 중국에서 빠르게 확산!

베이징지사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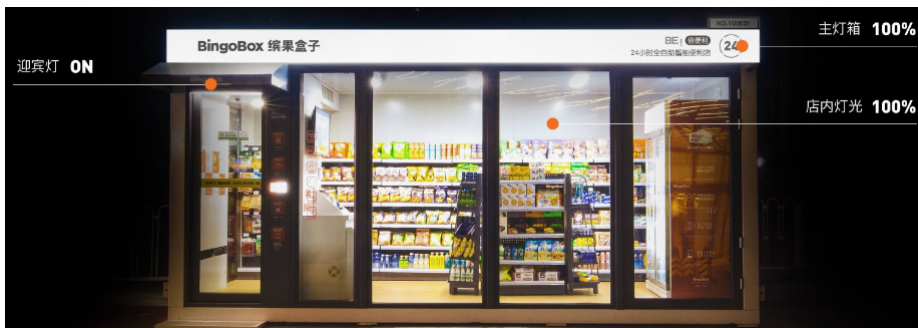
▶ 신유통 시대가 열린다

- 미국의 초대형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은 2016년 말 시애틀에서 직원과 계산대 없이도 물건을 장바구니에 넣으면 자동으로 계산되어 모바일로 청구되는 혁신적 시스템을 갖춘 무인편의점 ‘아마존고’를 세계 최초로 선보였다.
- 뒤이어 중국의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는 2017년 7월 항저우에서 중국 최초 무인편의점 ‘타오카페’를 공개하였으며, 마윈 회장은 “온오프라인과 물류를 하나로 합쳐야만 진정한 신유통(新零售)을 탄생시킬 수 있다.”고 발언하여 현재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신유통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 세계 최초 상용화 무인편의점, 광저우에서 시작되다

- 아직 ‘아마존고’와 ‘타오카페’의 매장이 시범운영 수준으로 상용화되지 못하고 있는데 반해, O2O 서비스로 과일을 판매하는 ‘빙고슈이귀(缤果水果)’는 무인편의점을 자체 개발해 작년 8월 광저우에서 세계 최초 상용화 무인편의점 ‘빙고박스’의 영업을 시작했다. 현재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 중국 22개 도시의 158개 매장을 운영 중이다.

| 빙고슈이귀(缤果水果)의 빙고박스 |



| 빙고박스 이용절차 |

1. 회원 QR코드 스캔

2. 상품 바코드 스캔

3. 모바일 간편결제

4. 결제 완료시, 출구개방



* 사진출처 : 빙고박스 홈페이지(www.bingobox.com)

▶ 로봇, 인공지능, 무인자율운행시스템 등 첨단기술이 유통에 결합되다

- 중국의 No.2 전자상거래 업체 ‘징둥’ 역시 무인편의점을 개발 중이며, 2017년 10월 상하이에 완전 무인 창고를 구축하여 입고, 보관, 포장, 분류 전 과정에 로봇과 인공지능을 적용해 매일 기존보다 5배 이상 많은 약 20만개의 주문을 처리 중이다.

| 징둥 무인편의점 |



- 알리바바는 2016년 9월 무인자율운행시스템이 탑재된 배송로봇을 출시하여 현재 알리바바 직원 3만 명에게 시범운영 중이며, 2017년 중국 광군절(11.11) 프로모션 기간에 무인자율운행 시스템의 이동식 무인택배보관함을 정식으로 선보이기도 했다.

시사점

- 최근 주목받고 있는 ‘신유통’에서 가장 논의가 활발한 부분은 안면인식, 로봇, 핀테크, 무인자율운행으로 대표되는 AI·IT 등의 첨단기술 활용이다. 현재 중국에서는 무인편의점과 같은 판매 단계뿐만 아니라 저장 및 운송단계에도 무인창고와 택배로봇 등과 같은 첨단기술을 빠르게 적용해 나가고 있다.
- 중국 현지 신유통 채널은 수입식품에 대한 수용도가 높고 기술적응력이 빠른 30대 이하 젊은 계층을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확장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 농식품 수출업체는 중국에 구축되고 있는 현지 신유통 채널을 활용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새로운 시장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